



# 협회중심으로 업계발전의 계기 삼아야

새봄과 더불어 새로운 바람이 우리업계에 불어오고 있다.

다름아닌 협회를 구심점으로 더 잘 해보자는 움직임이다.

양계협회는 28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몇가지의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앞으로의 협회의 운영 방향 설정에 관한 문제이다.

현재의 양계협회를 발전적으로 연합회로 승격시키고 연합회산하에 채란, 부화, 육계 등 현재의 분과 위원회를 협회의 성격으로 강화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회 정관을 개정하자는 내용이였다.

이날 정관개정 소위원회를 선출하였고 여기에서 초안이 되어 다시 이사회와 총회 주무부장관의 승인등 남아 절차는 있으나 정관개정 방향에 대한 이사회 의견이 결정되었다. 협회란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단결해 설립하고 유지하는 회라고 국어 사전에는 설명하고 있다.

협회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 관계를 같이하는 사람들끼리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모여서 일하는 곳으로 정의하는 회원이 많다. 이해 관계가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잘 해보자는 대화는 너무도 어려우며 이런 문제는 정부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한다.

부화업이 허가업이 되고 종계업이 등록업체가 되면서 같은 업종끼리의 대화를 원해왔고 이런 역할을 분과 위원회가 그간 담당하여 오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왔었으나 충분한 역할을 다하기에는 미흡하였다.

지난 2월 6일 신문회관에서 개최된 부화 및 종계회원 회의에서 오세정 회장은 인사를

통해 업종별로 협회의 성격으로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하였고 협회의 조직을 위한 정관개정문제가 활발히 거론되게 되었다. 현재의 양계 협회는 6년전 가금협회 부화협회 감별협회가 정부방침에 의해서 통합되어 운영되어 왔다.

산업이 발전됨에 따라 같은 업종간에도 더욱 이해가 복잡해지고 있어 이에 맞게 기구를 개편하므로써 통합협회와 업종별 협회와의 장점을 살린 새로운 정관을 탄생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만 우리가 경계하여야 할것은 지나친 추측이나 상상은 업계발전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대신 더욱 일을 어렵게만 할 뿐이다. 충분한 대화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번 정관개정을 발전적인 계기로 만들어야 하며

연관하여 오  
후려 후퇴의 계기가 될수도 있으므로 더욱 신중을 기하고 서로의 형편을 이해하고 충분한 대화와 협조의 묘를 살려 합의에 의해 순리대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함께 연구하여야 할것은 70년 대의 협회운영을 뒤돌아 보고 앞으로의 궁극적인 협회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 과도기를 단계적으로 무리없이 운영하는 문제도 연구 검토 되어야 되겠다. 양계산업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항상 잊지 말고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협회로 발전해야 되겠다. 심는대로 거둔다는 말과 같이 협회의 원대한 목적을 위해 지금부터 씨를 뿌리고 가꾸어 풍성한 열매를 기다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인 것이다. (翰)